



### 29품목대표조직 육성촉진 워크숍 개최

# 오리, 축산품목 대표조직에 새로이 편입돼...

◎ 일시 : 2009년 6월5일(금)  
14:00~18:00

◎ 장소 : 농업연수원 대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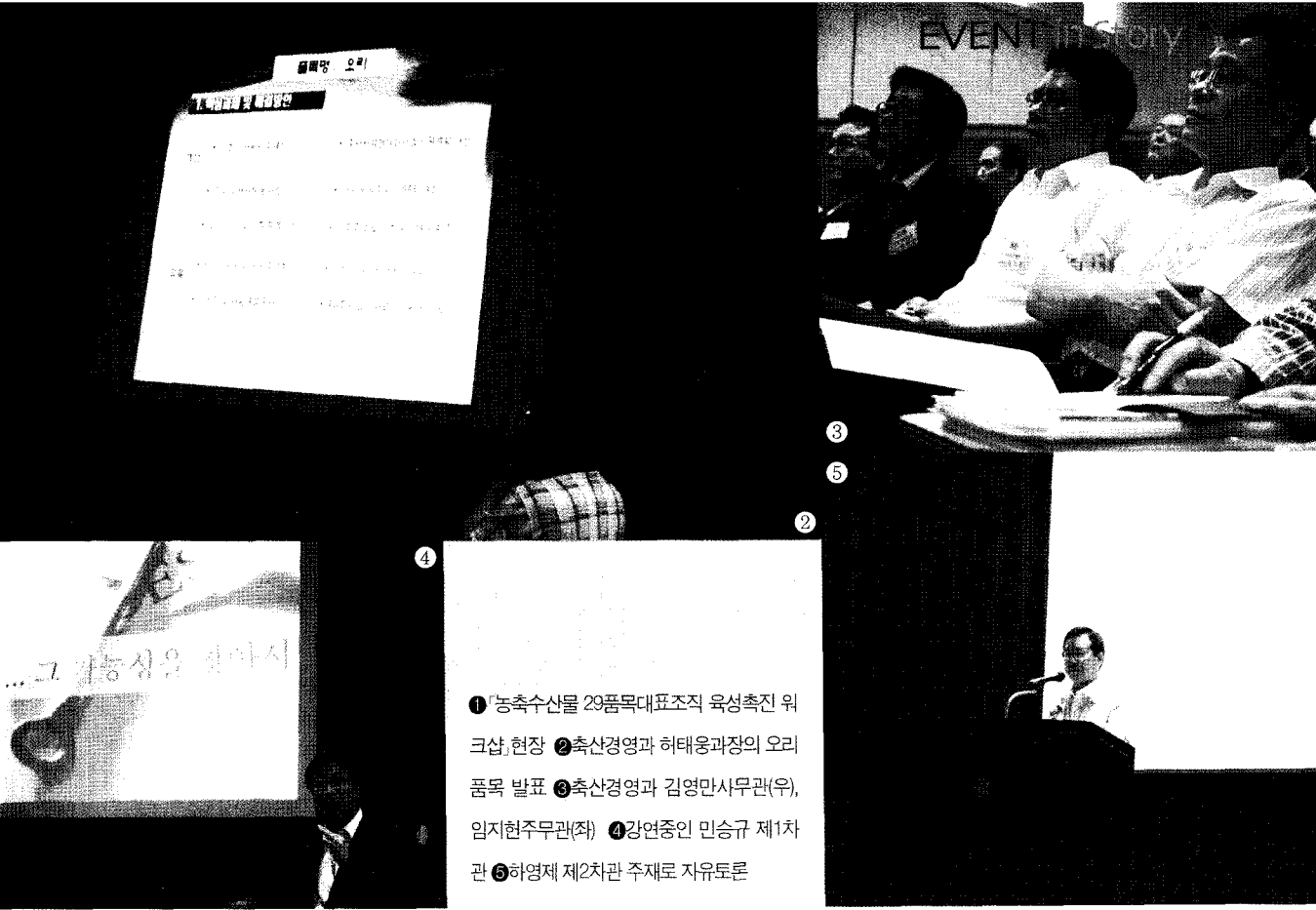
◎ 행사명 : 농축수산물 29품목 대표조직 육성촉진 워크숍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월 5일(금), 경기 수원시 소재 농업연수원에서 「농축수산물 29품목대표조직 육성

촉진 워크숍」을 열고 농수축산에 걸친 29가지 품목에 관한 핵심적인 현황과 개선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워크숍 시작에 앞서 민승규 제1차관은 「명품, 그 가능

성을 찾아서」강연을 통해 우리 29개 품목대표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해 약 한 시간여에 걸쳐 열띤 강연을 펼쳤다.

민승규 제1차관은 “웰빙의 다음 화두는 바로 ‘명품’ 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농수축산업도 이제는 소비자가 먹고 싶고, 갖고 싶게 만드는 명품농산물 시대를 열어만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해 좌중의 공감을 얻었다. 민승규 제1차관의 강연에 이어 진행된 품목별 생산·유통구조 개선대책 발표는



- ① '농축수산물 20품목대표조직 육성촉진 위크샵 현장' ② 축산경영과 허태웅과장의 오리 품목 발표 ③ 축산경영과 김영만사무관(우), 임지현주무관(좌) ④ 강연중인 민승규 제1차관 ⑤ 하영제 제2차관 주제로 자유토론

농림수산식품부의 각 과장이 해당품목에 대해 간략히 핵심위주로 설명하였는데, 축산분야를 맡은 허태웅 축산경영팀장은 “이번에 오리가 축산품목 대표조직에 새로이 편입되었으나 아직까지 가치사슬(Value-Chain) 분석도 미흡한 상태.”라고 밝히면서 “금년 중으로 국회 등과 협의해 오리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낙후된 사육시설을 현대화하고, 한국형 GPS 개발, R&D 사업강화 등 생산과 유통에 걸쳐 산재된 다양한 해결과제를 품목대표조직을 통해 하나씩 풀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태선 식량원예정책관은 “품목이 다양한 만큼 해결과제도 다양한 것 같다.”며 “그렇기 때문에 품목대표조직을 육성하여 당면 과제 해결을 집중공략해야 하는 것”이라고 대표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각 해당품목에 대한 생산·유통구조 개선대책 발표 후 하영제 제2차관의 주제로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는 각계에

서 다양한 질문과 건의사항이 쏟아졌다. 하영제 제2차관은 “언급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종합하고 다듬어 품목대표조직을 통한 농수축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질 것”을 약속하면서 현황리에 위크샵을 마쳤다. 한편, 이번에 오리산업이 새롭게 품목 대표조직에 편입되면서 생산에서 가공·수출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담당, 오리에 대한 종합적 대안 제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오리품목 연구회가 출범한다. 정부에서는 오리품목 연구회가 오리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 연구조직으로 발전하고 품목별 대표조직과 연계를 통해 연구결과를 조기에 실용화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연구위원으로는 학계, 해당 산업 및 정책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키로 하였다. 따라서 올 하반기부터 오리 품목 연구회가 새로이 꾸려짐에 따라 산업에 필요한 연구활동과 국내외 산업동향 파악, 중장기 전망, 정책 대안제시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